

# 신뢰의 침묵으로 묵묵히 걸어가자

[짧은 말씀 묵상집 (6)]

제임스 김 목사 나눔

## 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죽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의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 이유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빌 1:21-23)

그러나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악인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 이유는 영원히 죽는 것보다 육신 적으로 살아 있어

혹시나 하나님의 구원을 은총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딤후 2:4).

##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과 복음의 합당한 삶?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롬 1:3-4)

또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었습니다(고전 15:3-4).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했습니다(빌 1:27).

사도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요(예수님의 신성)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이 영원한 생명"(예수님의 인성)이었습니다(요일 1:1-2).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합당한 생활이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5 절)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답게 사는 삶이란

영원한 생명(2 절)을 얻는 자로서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행하면서(6 절) 형제를 사랑하며(2:9)

악과 불의를 행치 않고 의로운 삶(3:12)을 사는 것입니다.

## 사도 베드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한 사도 베드로(마 26:35), 결국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70, 72, 74 절).

그리고 그는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75 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어서는 아니됩니다.

우리는 자신만만해 해서는 아니됩니다. 우리는 자만해서는 아니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무너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만은 철저히 깨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철저히 미워할 필요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잡혀가시던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었던 사도 베드로(눅 22:54),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후(55-60 절) 닭이 곧 울었고(60 절)

주님께서는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61 절).

왜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자기에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마 26:35)라고

말했던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아니면 장차 "사람을 낚는 어부"를 보셨을까요?(4:19)

"어부"였던 사도 베드로(18 절), 예수님께서는 그를 삼년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자 '제자훈련' (?)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년간 제자훈련을 받았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요 20:6-7)과

제자들 가운데 두 번이나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19-29 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하고 다시금 본업인 어부로 돌아갔습니다(21:3).

이러한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나타나서(14 절)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내 양을 치라"(15-17 절).

## 사라의 의심, 나의 의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의심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를 의심했습니다(롬 4:18).

그녀가 의심하게 된 원인은

그녀는 분명하게 보이는 자신의 현실을  
보이지 않는 미래 보다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현실이란

자기의 태가 죽은 것 같다는 것이고

(물론 남편 아브라함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음)(19 절)

보이지 않는 미래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중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이 75 세 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인 25 년 후  
그가 100 세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11 년 후인 그의 나이 86 세 때

남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녀는 인내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조급해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성취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라의 의심 속에서

제 의심을 비춰 봅니다.

(Lydia Brownback, LEGACY OF FAITH: From Women of the Bible to Women of Today"란 책을 읽으면서)

## 사람들 보기에 특별한 존재가 되고자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 특별한 존재가 되고자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 43:4).

보배롭고 존귀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우리의 보배로 삼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은 ...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눅 18:9, 14).

이 믿음의 근거는 자신의 행함입니다(11-12 절).

그 결과 그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며(9 절)

'죄인'으로 여기는 그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둡니다(11 절).

그리고 그는 그 사람과 자신을 차별화하여

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매우 훌륭하다고 자랑합니다 (11 절).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의롭다하심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14 절).

## 사람들에게 주목 받는 것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불쌍한 영혼에게 주목합니다(행 3:4).

또한 그/녀는 자기 개인의 능력과 경건(신앙)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주목 받는 것을 이상히 여깁니다(12 절).

오히려 그/녀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4:10-12).

또한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게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주님만을 주목합니다.

##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없으면 ...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없고

오히려 재물이 더욱 불어나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의 눈은 솟아나며,

그는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합니다

(시 73:5-8, 12).

## 사람을 매수하고 총동시키는 것

사탄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거하게 만들고

또한 사람들을 총동시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행 6:11-14).

##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고난도 달게 받는 것입니다  
(잠 27:7, 박윤선).

##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하시는 구원의 일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삼상 14:6).

##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습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습니다.  
양 떼도 피곤합니다  
(욘 1:12, 16, 18).

## 사람이 무엇이관대

햇빛이 비칠 때 보이는 수 많은 먼지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칠 때  
우리는 먼지보다 많은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때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시 8:4)

## 사랑은 ...

사랑은 보내는 것입니다(요 3:16; 요일 4:10).

## "사랑의 수고"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의 목숨까지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살전 1:3, 4; 2:8).



## 사랑의 징계가 무익한 이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때리시지만  
그 때리심이 무익한 이유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렘 2:30).

## 사랑이 재물보다 낫습니다.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낫습니다.  
그 이유는 재물은 다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시 52:1, 7, 8).

##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

말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 4:8).

## 사모님에게 그리하는 것은 곧 목사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목회자를 향한 불만 등을  
목회자의 아내에게 쏟아낸다는 것은  
곧 그녀의 남편인 목회자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리하는 것은  
목회자의 마음을 매우 분노케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행 26:14-15).

## 사무엘도 자녀 농사가 그의 마음대로 잘 안된 듯 ...

그리도 훌륭한 주님의 종인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삼상 8:3).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5절).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대로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인데(1:20),  
젖을 떼후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났던 사무엘인데(22-28 절)  
분명히 자기 두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두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을텐데 ...

사무엘도 자녀 농사가 마음대로 안된 듯 해보입니다.

##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자는  
자기를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고후 2:5-11).

## 사탄은 ...

사탄은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빼앗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눅 8:12).

사탄은  
우리가 기쁨으로 받은 말씀의 뿌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므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듭니다(13 절).

사탄은  
말씀을 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14 절).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여  
인내로 결실케 하십니다(15 절).

## 사탄은 ...

사탄은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게 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마 16:23).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속에 가득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령님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게 만들었습니다  
(행 5:1-3).

## 사탄은 우리 마음을 미혹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미혹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마음이  
진실되지 않고 거짓되게,  
깨끗하지 않고 더럽히게 만들고자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고후 11:3).

## 사탄의 역사 vs. 주님의 역사?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며,  
시련을 통하여 배반하게 만들며,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들은 말씀을 지키게 하여서  
인내로 결실케 하고 계십니다  
(눅 8:12-15).

## 사탄의 유혹

구속자(Redeemer)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 당하신 예수님께서는(눅 4:1-13)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므로(신 8:3; 6:13; 6:16)  
그 3 가지 유혹들을 뿌리치셨습니다(눅 4:3, 7, 9-11).

그러자 사탄은 "얼마 동안"("until an opportune time") 떠나 있다가(13 절)

사역을 끝내(완성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또 다시 3 번 '스스로 구원하라'(그 목적은  
구속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고 유혹했습니다(23:35, 37, 39).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C. D. "Jimmy" AGAN III 의 "The IMITATION of CHRIST in the GOSPEL of LUKE"을 읽으면서)

##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애워싸고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애워싸는 것입니다

(삼상 23:8; 24:26).

사탄은 우리를 갇히게 만듭니다

(23:7; 참고: 출 14:3).

사탄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창 39:20)

베드로(행 12:4, 5)와 바울과 실라도 깊은 옥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16:23, 24).

비록 사탄은 우리를 갇히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갇힌바 된 상황에서 건져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도

"...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케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기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후 1:9-10).

## 삭도 같은 혀

날카로운 삭도 같은 간사한 혀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합니다  
(시 52:2, 4).

## 샅군 목사 아닌가요?

미신적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고용을 받아  
그 사람의 목사가 된 사람(삿 18:4),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 받고(17:10)  
또한 그 사람에게 아들처럼 여김을 받는 목사(11 절),  
그렇다고 그 사람과 함께 목회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는 목사(11 절),  
이러한 목사는 더 큰 교회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한 사람의 목사가 되어 작은 교회에서 일하는 것과  
자기들과 함께 가서 더 큰 교회에서 목사가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는 말에 솔깃하여(18:19)  
마음에 기뻐서 우상을 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갑니다(20 절).  
이러한 목사가 참 목자입니까? 샅군이 아닌가요?

## 샅군 목사에게 상담을 받는 교인?

샅군 목사에게 상담을 받는 교인,  
그 목사에게 자기가 가는 길이 성공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는 교인(샅 18:5, 현대인의 성경),  
그 목사가 자기에게 '평안히 가라  
너가 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6 절)을 듣고 그리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관대로 보기에 너무나 좋은 곳(9 절),  
한가롭고 평화롭게(7 절) 그리고 태평스럽(10 절, 현대인의 성경) 살 수 있는 곳ियो  
또한 아주 넓고 아무 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부를 누리는 곳(7, 10 절),  
그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확신하는 교인(10 절, 현대인의 성경),  
이것이야 말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요? (마 15:14)

##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은 ...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후 1:8-9).



##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내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자 함임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큰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현재에도 큰 위기 가운데 건져주실 것이며  
미래에도 건져주실 줄 믿어야 한다(고후 1:8-10).

##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을 때  
이것은 우리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고후 1:8-9).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과거에도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10 절).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만한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해야 합니다(11 절).

## 살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행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입을 크게 열고 혈떡여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1 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므로 입을 열고 혈떡였나이다.”

이것은 사람이 공기를 호흡하지 않으면 죽겠기 때문에 호흡하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면 죽을 줄 알고 사모하였습니다(박윤선).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입을 열고 좀 혈떡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지 않고는 죽는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좀 생존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 살인적 질투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삼상 18:9) 그는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12 절).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하여금 자기 곁에서 떠나게 했습니다(13 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므로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14-15 절).

특히 온 이스라엘과 유다와(16 절) 심지어 자기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20, 28 절)

사울 왕은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서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29 절).

그래서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이 보기에도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리려고 했습니다(19:5).

질투는 까닭없이 상대방을

싫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어

멀리하게 만들며 심지어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만들어

살인을 시도하게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적 질투'입니다.

## 상당한 값을 치뤄야 하는데 ... ㅠ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를  
자기 자신을 위해 남용하는 권위주의적 목사는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드립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성도들에게서 내가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양 떼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겸손한 목사님은  
성도님이 '목사님께 다 드립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상당한 값을 치뤄서라도 드리려는 마음 가짐으로  
양 떼들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합니다  
(참고: 대상 21:18-27).

## 상황, 반응, 사실

### 1. 상황: 지금 당신이 접한 상황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이 접한 상황은

"가뭄"과 대적의 "칼", "전염병" (예레미야 14:1, 12, 15-16, 18),

"고난"당함(8 절), "큰 파멸, 중한 상처"(17 절)

### 2. 반응: 지금 그 상황을 접한 당신의 반응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슬퍼하며,(2, 13 절)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림(17 절),

"피곤하여" "애통하니" 부르짖음"(2 절), "부끄럽고"(낙심하고)(3, 4 절),

"근심하여"(3 절), "두려움만 보"이고(19 절) ...

그런데 주님은 관심도 없으신고 같고(8 절), 건져주시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9 절),

나를 버리신 것 같고(9, 19 절),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고(19 절)

나를 징계하신 후 치료도 안해주시는 것 같고(19 절),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21 절) ...

### 3. 사실(진리): 지금 당신이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진리는?

그러나 사실(진리)는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의 소망'이시요(8 절),

당신이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8 절),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7 절).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을 소망(양망)해야 합니다(22 절).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10 절).

당신은 그 "어그러진" 길로 걸어가는 발걸음을 멈춰야 합니다(10 절).

당신은 당신의 많은 "타락함"과 "범죄"를 인정하고(20 절) 자복해야 합니다(7 절).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15:7).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14:12, 참고: 15:11).

당신은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21 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당신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16:15)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 상황보다 말씀에 ...

상황에 영향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게 하시고,  
상황에 끌려가기 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하소서  
(참고: 수 14:6-15).

## 상황이 점점 더 안좋아지는 것을 볼 때에 ...

상황이 점점 더 안좋아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낙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충분히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요즘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저는 성령 로마서 4 장 18-21 절 말씀으로 하여금  
제 영혼에게 말씀하도록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즉, 저는 하나님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18 절).  
"Against all hope, Abraham in hope believed ..." (18 절).  
제가 보기에 인간적 소망은 다 끝어졌다 할찌라도  
저는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망하기로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19-20 절).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마태복음 16 장 18 절과 요한복음 6 장 1-15 절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신다는 말씀에 충분히 설득을 당하게 하옵소서'  
["being fully persuaded that God had power to do what he had promised" (롬 4:2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새해 2019년 들어와서 네분의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

### (1) 고 유정숙 권사님: 은혜 (Grace)

고 유권사님이 좋아하시던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생각할 때  
고인은 "잃었던 생명"이셨는데 여기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서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으셨다.  
그 구원의 은혜의 깊이가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아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그 분은 양로원에 계셨을 때에도 그리도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셨다.  
나는 고 유정숙 권사님을 생각할 때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생각났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 (2) 고 오덕겸 장로님: 평강 (Peace)

고 오 장로님, 나의 장인 어르신은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좋아하셨다.  
그런데 나는 지난 주 금요일 새벽기도회 때에서야 처음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아니, 어떻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질병으로 그리도(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시고  
계셨는데 그 찬송가 1절 가사처럼 "내 평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갈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늘 편한다"라는 고백을 찬양으로 하실 수 있으셨을까?'  
어떻게 그 고통의 길이 순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고통 중에 "늘 잔잔한 강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너무나 어려우셨는데 어떻게 "나의 영혼을 늘 편한다"라고 찬양을 즐겨하실 수 있으셨을까??  
나는 평화롭게 잠드신 장인 어르신을 생각할 때 "평강"이란 단어와 함께  
빌립보서 4장 6-7절 말씀이 생각났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 (3) 중학교 친구 목사인 Rubin 선교사의 어머니 권사님과 몽골 참사랑 교회의 나르만다흐 전도사님: 사랑 (Love)

나는 새해 들어서 1월 4일 금요일에 고 유정숙 권사님의 하관 예배를 인도한 후  
그 다음 날 토요일 같은 시간에 장인 어르신님의 하관 예배를 인도한 후  
1월 7일 오후에 Rubin 목사의 어머니 권사님의 장례식에 다른 중학교 친구 인규 집사하고  
같이 참석했다.

교회 본당 의자에 인규랑 둘이 앉아 있는데

나는 내 옆에 앉아 있는 인규를 생각할 때 그는 작년 어머니와 그가 그리도 사랑하던 15살 밖에 안된  
막내 아들을 이 세상에서 떠나보냈는데, 그리고 나는 나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시던 교회 유권사님과 장인  
어르신을 떠나 보냈는데 ... .

이렇게 우리 둘이 앉아서 Rubin 목사가 그리도 사랑하던 어머니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묘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받은 귀한 은혜는 친구의 어머니 권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방 벽에 고린도전서 13장과  
손주들의 사진을 붙혀놓으시고 기도를 하셨다는 말을 듣고 나는 도전을 받았다.

안그래도 금년 교회 표어가 "서로 사랑하라"(요 15:12)이고 헌금송을 복음성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참고"를 부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권사님의 살아 생전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벽에  
붙혀놓으시고 기도하셨다는 말을 듣고 나 또한 적어도 "사랑은 오래참고"란 복음성가를 주일 헌금 때뿐만  
아니라 삶 속에 외워서 부르면서 마음으로라고 기도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실천에 옮겨야 겠다고 도전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지난 주 월요일 운동을 하다가 몽골 참사랑 교회 페이스북에 올라온 나르만다흐  
전도사님(25살)의 사진과 참사랑 교회 사모님이 쓴 몽골어를 "Translation"(번역)을 눌러서 영문을  
읽어보니 "eternal country"란 말을 보고 혹시나 전도사님이 영원한 나라로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 좀  
놀랐다. 믿겨지지 않았다.

약 4년 전에 몽골에 갔었을 때 세미나 때랑 농구할 때랑 식사 등등 본 기억이 나는 전도사님인데 ..  
확인해 보니 교회 연합 세미나 도중 쉬는 시간에 소파에 앉아 있다가 쓰러져 이 세상을 떠났다는게  
아닌가. ㅠ ㅠ 그래서 나는 지난 주 한주간 동안 매일 자주 몽골 참사랑 교회 페이스북에 들어가 올라오는  
글들과 사진과 동영상을 계속 보았다. 장례 예배 후 고인의 무덤을 보니까 마음이 슬펐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온 교우 식구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슬플까 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고 나르만다흐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마음은

그 분이 우리 교회에 쓴 기도 편지에 부탁한 3가지 기도 제목 중 첫번째 기도 제목은 전도사님이  
이젠 이 세상에 없기에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인 친척 전도(전도사님은 고아로서 친척 분들을 전도하고 싶어 그 친척 집에 거하면서  
참사랑 교회를 섬겼다고 함)를 위해 나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가 권면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몽골 참사랑 교회를 위해서이다.

그런데 참 생각해 만든 것은 고인에 대한 참사랑 교회 사모님과 지체들의 글들을 보면서 나르만다흐 전도사님에 대한 추억이 일관된 면이 있다는 것을 엿보았다.

그 일관된 면이란 고인을 통하여 사랑을 느꼈더라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주는 도전은 과연 내가 죽으면 나에게 대해서 사람들은 무슨 일관된 기억이 있을까?라는 질문이다.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면 살아야 함을 도전받았다.

나는 Rubin 목사의 어머니 권사님과 몽골 참사랑 교회 나르만다흐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고린도전서 13 장(사랑장)에서 각각 3 가지 씩 6 개 교훈을 받았다:

1. 사랑은 오래참고 (4 절)
2.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상대방이 나에게 잘못된 것을 내 마음/생각 속에 기록해 놓지 않고) (5 절)
- 3..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니라 (7 절)
4. 사랑은 온유하며 (4 절)
5.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5 절)
6. 사랑은 항상 소망하느니라 (7 절)



## 생각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자(롬 12:3).

### 생각(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아버지 야곱은 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22년 동안이나(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에  
보디발에게 팔린 후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39살에 흉년 2년째 되는 해에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나기에).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그의 아들들에게 접해 들은 후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도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창 45:28).

그리고 나서 야곱은 직접 요셉을 만나고 나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죽어도"(46:30).

그렇게 말했던 야곱이 야곱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기 전에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48:11).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 "생각의 결과"

주님께서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가면 심령이 평강을 얻을텐데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거절하는  
교인들의 "생각의 결과"는  
그들 앞에 장애물이 놓이는 것이며  
또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렘 6:16-21).

## 생각의 속도를 줄이자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생각의 속도를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것을 멈추고  
잠잠히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 (사 30:15).

##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좋은 일을 행하시되  
넘치도록 행하십니다  
(창 48:11).

## 생명을 속량하는 값

아무리 재물이 많은 부자라 할찌라도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엄청나서  
그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합니다(시 49:6-8).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15 절).  
속량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므로  
그 엄청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골 1:14).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마 6:24)  
어떻게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과 재물을 함께 중히 여기며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재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 119:109-111).

## 생존의 비결

생존의 비결은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민 14:24, 38).

## 생활의 염려로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습니다(눅 21:34).

## 서로 사권이 있기 위해선 ...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권이 있는 우리가  
서로 사권이 있기 위해선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둠에 행하면  
서로 사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 1:6-7).

## 서로 죄를 고백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 (약 5:16 상).

1. 과연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2.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
3. 만일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했을 때 다른 지체가 시험에 들든지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찌해야 하는가?

## 서로 화목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막 9:50).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선 ... 있어야 합니다:

1. 자기 희생 (막 9:50)
  - a. 마치 소금이 녹아야 하듯이
2. 자기 부인 (8:34)
  - a.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3. 겸손 (9:34-37)
  - a. 교만한 사람은 서로 화목할 수가 없음
4. 섬김 (9:41)
  - a.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웃을 섬기되 작은 일에 충성

## 섞어야 할 것과 섞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믿음과 섞지(mix)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 4:2).

성도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서로 섞이지(mingle) 말아야 하는데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습니다  
(스 9:2).

## 섞이지 말고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분리하고(떠나고)  
섞이지 말아야 하는데 ...  
(스 9:1-2)

##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서 좋은 소리 못듣고  
오히려 오해를 받고 심지어 비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이해를 받고 칭찬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행하신 선한 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살후 3:13).

## 선한 목자되신 주님은 ...

선한 목자되신 주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오직 선한 목자되신 주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요 10:3, 4).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뒤에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알아보고  
동산지기로만 알고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니까  
그 때서야 그 분이 예수님("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20:11-16).

## 선한 손,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느 2:18).

## 선한 영향력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향력이란 겸손함(출 18:11, 민 12:3)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진실함입니다(출 18:21).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양가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제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기원하였습니다.

## 선한 자와 함께 하십시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악한 자인 이스라엘 왕 아합과 함께하여 도왔지만  
하나님께서서는  
선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역대하 18 장; 19:2, 11; 참고: 20:35).



## 섬기다가 죽으면 된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면 된다(행 13:36).

##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도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 23:5, 현대인의 성경).

##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성공)의 비결은 ...

1.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창 39:2, 3,21, 23)
2.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수 1:8, 왕상 2:3)
3. 하나님을 찾는 것(대하 26:5)

##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성공)이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성공)이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 많은 역경과 고통을 통해서도(창 39 장)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 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 45:4-8; 50:20; 롬 8:28, 12:2).

##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를 미워하며,  
우리를 저주하며,  
우리를 모욕하며,  
우리의 빵을 찢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를 선대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며,  
우리를 모욕하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빵을 치는 원수에게 다른 빵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눅 6:27-29).

## 성경을 연구는 하지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요 5:39-44).

## 성경을 읽다가 비슷한 말씀이 나올 때 ...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입니다(창 13:6).  
그래서 롯은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9-11 절).

야곱과 에서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소유가 풍부하여  
그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36:7).  
그래서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6 절).

성경을 읽다보면 비슷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리할 때 그 말씀들을 연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에 두 말씀들을 연관해서 묵상할 때  
왜 롯과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고  
아브람과 야곱은 그 땅에 남아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했을 때 든 생각은 창세기 12 장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가라고 명하시고 보여주신 땅입니다(12:1).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7 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아브람과 그의 후손인 야곱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롯과 에서를 풍부하게 축복하신 후 그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택한 백성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약속의 땅인 새하늘과 새땅, 새 예루살렘에 두시려고  
우리는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 성경적인 성공관?

성공["형통"(success)이란(창 39:2, 3, 23)]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2, 3, 21, 23 절),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시며(4, 21 절),  
하나님께서 높이시사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 총무로(4 절),  
감옥에서는 제반 사무를 맡은 자로(22 절),  
애굽(이집트)에서는 총리로(41:41)],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45:5, 7).

## 성도는 ...

1.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닌 자입니다 (렘 14:9; 15:16).
2.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는 것처럼(겔 36:21) 성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깁니다.
3.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39:25).
4.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베풁니다(25 절).
5.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습니다(39:7).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보신다"(시 116:15, 현대인의 성경).

##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는 성도님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의 섬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므로  
우리는 그 섬기는 자들을 알아 주어야 합니다(고전 16:15-18).

## 성도님들의 마음을 더욱더 강박하게 만들고 있는 거짓된 목사?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할 성도들에게  
평안을 구하고 회개치 않는 죄의 결과인  
재난을 구하지 않는 거짓된 목사들이야말로  
그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더 강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 렘 38:4).

## 성도들의 인내

우리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계시록 15:12).

## 성령님은 ...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요 14:16),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십니다(17 절),  
진리의 영이십니다(17 절, 15:26),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14:26),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15:26),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16:8),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13 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14 절).

##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할 때 ...

우리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심 따라  
의심하지 말고 순종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행 10:19-20, 34-35).

##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기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고후 3:17-18).

## 성령의 겸이 무딘 그리스도인들은 ...

무딘 칼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들 수 밖에 없습니다(전 10:10).  
이와 같이 성령의 겸인 하나님의 말씀(엡 6:17)이 무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 힘이 더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인드(mind)가 날카롭게 되 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 사람(육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영적 민감함이 둔해져서(spiritual insensitivity)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므로(lack of spiritual discernment) 혼동(confusion) 속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왕좌왕하면서 갈바를 알지 못해 이리 저리 헤맬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인드 날카롭게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민감함과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는 문은 닫으시고 어는 문은 열어주시는지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 성령의 검이 무딜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무기인 성령의 검(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던지

갖추고 있다해도 그 검이 무딜 때(삼상 13:21)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니다.

교회란 공동체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 화평케 하는 자(peace-maker), (2) 화평을 깨는 자(peace-breaker), (3) 화평을 지키는 자(peace-keeper). 우리는 화평을 깨는자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우리는 화평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란 공동체 안에는 평안(Shalom)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한 일원(지체)으로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어야 합니다(엡 4:3).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합니다(2 절).

그리고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2 절).

왜 우리는 서로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서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미움과 교만함과 오래참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화평을 깨는 자들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리고 온유함으로 서로 용서하며,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고 용납해주셨듯이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공동체의 화평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

## 성령충만한 마음에는 ...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 있습니다  
(엡 5:18-21).

## 성령충만한 자는 말씀충만한 자입니다.

성령충만한 자는 말씀충만한 자,  
말씀 충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집니다(살전 1:5)  
그리고 성령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습니다(6 절).  
그/녀는 하나님의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2:13).  
그러므로 그 말씀이 믿는 그/녀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13 절).  
  
오직 말씀!

[개인적으로 볼 때 말씀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흡수력이 있는 것을 봅니다.]



## 성적 유혹

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가 음녀의 집으로 갔을 때  
그 “간교한 계집”은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그를 맞이하였습니다(잠 7:7, 8, 10).  
그 숨겨진 의도는 “함정”을 놓아 그로 하여금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게(faithless)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 음녀의 숨겨진 참된 의도는  
많은 결혼한 남자들로 하여금 결혼할 때에 언약하였던 것을  
파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박윤선).  
이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그 음녀는 그 어리석은 자를  
'여러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꾀'었습니다(21 절).  
여기서 '꾀다'라는 말은 영어로 “seduce”(유혹)입니다.  
이 영어 단어 “seduction”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그 문자적 의미는 “to lead astray” 곧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다,’ ‘미혹시키다’  
또는 ‘타락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을시에는  
유혹과 꾀이 관련되어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흥분을 일으키게 하여  
행동 선택을 하게 만들되 그 행동이 결국에는 그 사람을 타락하게 이끈다는 것입니다(Wikipedia).  
그러면 어떻게 음녀가 한 지혜 없는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하여 타락시켰을까요?  
적어도 3 가지입니다:

- (1) 음녀는 보이는 것으로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하였습니다  
(10 절 - “그 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
- (2) 음녀는 만지는 것으로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하였습니다  
(13 절 - “그 계집이 붙잡고 입을 맞추며 …”).
- (3) 음녀는 들리는 것으로 어리석은 남자를 유혹하였습니다  
(21 절 - “여러가지 고운 말로 … 입술의 호리는 말로”).

지금도 사탄은 어리석은 저를 유혹하여 타락을 시키곤 합니다.  
사탄의 저의 취약점인 성적으로 유혹하여  
마음으로 간음하게 만들곤 합니다(마 5:28).  
그 결과 사탄은 저의 영적 힘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 성적 유혹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은?

우리가 성적 유혹을 받고  
그 유혹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일수도 ...?  
(잠 22:14)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있어서가 아닐까요? (15 절)

##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더이상 헛되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 1:10).

## 세상 끝에는 ...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일과  
우리가 "미움"을 받으며  
또한 서로 "미워"할 것입니다  
(마 24:3-5, 9, 10).

## 세상 사람들 보다 더욱 심하게 죄를 짓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 보다 더욱 심하게 죄를 짓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께 매를 맞으므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 겸손해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사 우리를 회복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때서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됩니다(대하 33:9-13).

## 세상 사람들 보다 못한 우리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도 못 살고 있습니다(겔 5:7).

## 세상과의 화합, 교회 안에서는 불화

우리가 이 더럽고 추한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더럽고 추한 모든 모양의 악을 다 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해야 하는데 지금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교회는 세상의 풍조에 밀려 더럽고 추한 죄악에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 마디로, 교회가 세상과 분리하고(나뉘고)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만 지금 교회는 세상과 화합(harmony)하고 교회 안에서는  
불화(disharmony)가 끊임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지금 사단은 모든 것을 거꾸로 바꿔 놓고 있는 것(exchanged, 롬 1:23)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나뉘게(분리되게, 불화하게) 만들고 세상과는 화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것보다 ...

넓고 좋은 부자 동네에서 한가하고 평화롭게(태평스럽게) 살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므로 돈이란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삿 18:7, 9, 10, 30-31)

좁고 안좋아 보이는 가난한 동네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세상적으로 이것 저것 부족하면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 23:1)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 매우 좋은 것일까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곳인(삿 18:7, 10)

매우 좋은 땅에서(9 절) 평온하고 안전하여

염려 없이(7 절) 한가히(27 절) 거주하면서(7 절)

걱정 없이 살다보면(27 절)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30-31 절).

##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견고함이 없고

오히려 요동함이 있습니다 (고전 3:1, 11).

## 세워져야 할 담, 무너져야 할 담

교회 사방에는 담이 견고히 두텁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겔 42:20; 43:8).

교회의 담은 높이 견고히 두텁게 세워져 세상의 세속의 물결이 교회에 못들어 오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담은 많이 허물어져 있는 듯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담이 헐어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서로에게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복음과 사랑으로 헐어야 합니다(엡 2:13-14).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서로를 향한 미움의 담이든 선입관의 담이든 모든 죄악된 종류의 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담들은 너무나 높이 견고히 세워져 있는 듯 합니다.

## 소나 나귀보다 못한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소나 나귀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사 1:3).

## 소망이 없어진 하나님의 때에

전능하신 주님은 마음이 초조한 우리로 하여금 전적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인정하게 만드실 정도의 불가능한 상황까지 기다리셨다가[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바라고 소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까지(롬 4:18-19);

마르다가 더 이상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살 수 있다는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나사로가 죽은 상태까지(요 11:11, 27, 40, 44-45)] 우리가 더 이상 바랄 수 없고

소망이 없어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믿게하시고 계십니다.

##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물을 다 사탄의 손에 맡기시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물질의 복인 우리의 모든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욘 1:10-12)

## 소유와 동거의 관계?

소유가 많아서 갈라서기 보다 소유가 적더라도 함께 동거하는게 낫습니다(참고: 창 13:6ff).

## 속단은 금물

하나님께서서는 사무엘에게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가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삼상 16:1),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3 절).  
그런데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도"라고 오판했습니다(6 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셨는데(3 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엘리압이라고 알게 하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속으로 엘리압이 "여호와와 기름 부으실 자"라고 오판했습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오판하여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말했습니다(17:28).  
사무엘의 오판이나 엘리압의 오판을 생각할 때 우리의 잘못된 판단의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선불리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러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엘리압의 경우는 자기의 막내 동생인 다윗에게 자초지종을 듣지도 않고  
속단을 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씀(17-18 절)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인데 말입니다.  
속단은 금물이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 속히

다투기를 속히하기보다(잠 20:3), 용서하기를 속히하길 원합니다(19:11).

## 속히 망하는 방법?

속히 망하는 방법은(수 23:16)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8 절)

우리 중에 거하는 불신자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고(12 절)

또한 그들의 신들을 이름을 부르고

그신들을 가리켜 맹세하며 그신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므로(7 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는 것입니다(16 절).

## 손해도 구분해야

나에게 유익된 손해가 있다.

그것은 재물의 손해를 통해서라도 영적인 재산을 되찾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해를 돌이켜

도리어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룻기 4 장).

그러나 나에게 무익한 손해도 있다.

그것은 남의 일에 간섭하고 가담하므로 보는 불필요한 또는 쓸데 없는 손해이다(잠 26:17).

손해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겠다.

## 순전한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사 48:10)

내 안에 모든 불순물을 제하시사 순수하게 만들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순수하게 만들어 주시되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연단하여 주시사(잠 17:3)

내 마음의 모든 불순한 것(마 15:18-19)을 제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찌끼와 혼잡물과 같은 나의 마음(사 1:25)을

고난의 용광로를 통하여 정화시키시사 순금같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순금같은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잠 30:5; 참고: 시 12:6).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께서 쓰시는 합당한 도구가 되길 기원합니다(딤후 2:21).



## 순종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그 길을 걸어가는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 식구들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명하시고 뜻하신 길이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당신은 끝까지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사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창 22:1-3).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모리아 산으로 3 일 동안 걸어갔었을 뿐만 아니라(3-4 절)

심지어 그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기까지(10 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부인 사라가 알고 있었을까요?

만일 그녀가 알고 있었다면

그녀의 남편인 아브라함의 순종함을 자신의 명철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사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자신의 명철을 의지했었더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명철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아들 이삭은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여쭙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7 절)

그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8 절).

그런데 어째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나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  
을 내밀어 칼을 잡고 나를 잡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9-10 절)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명철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의 본능은 적어도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이해를 받고 싶어하겠지만  
이해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를 받는다 할찌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도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빌 2:8).  
순종하시되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영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요 1:11)  
오히려 배척을 당하셨습니다(마 13:57).  
심지어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박히시기까지(요 19:6)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서는(히 5:8)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눅 9:23).  
이 주님의 말씀에 당신은 믿음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주님 가신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주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식구들에게조차 이해를 받기보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외로운 길을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시겠습니까?

## 순종의 길

요나 선지자는  
자기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옴바로 내려갔고,  
배로 내려갔으며, 배 밑으로 내려갔고, 심지어 큰 물고기 안에서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렸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자기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오셨고,  
육신의 몸까지 입으실 정도로 내려오셨고,  
종의 형제를 입으시기까지 내려오셨으며,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려오셨다가,  
결국에는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벌코프의 "조직신학"을 읽으면서)

## 순종할 때 축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이 출애굽기 39-40 장에 18 번이나 나옴)  
모든 역사를 마쳤을 때 모세는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출 39:42-43).

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가 수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빌 2:8).

##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 때부터  
약 400 년 동안 살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레 18:3)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마음으로  
스스로 더럽하지 말라"고 명하셨는데(30 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명하셨는데(4 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을까?

## 순종함에 있어서의 시험?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인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창 31:3)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에 있어서 극복해야 할 상황들 중에 두개의 큰 두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자기를 쫓아온 외삼촌 라반입니다(23 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외삼촌의 딸들이 레아와 라헬을 자기에게서 억지로 빼앗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31 절).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은 라반이 안색을 본 야곱은(2, 5 절)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습니다(20 절).

그 사실을 "삼 일 만에" 알게된 라반은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 일 길을 쫓아가" 야곱에게 왔습니다(22-23 절).

그는 충분히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29 절).

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밤에 라반에게 현몽하여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24 절).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대로(3 절)

그 두려운 상황에서 야곱에게 함께계시사(5, 42 절)

라반을 막으시고 그로하여금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7 절).

두 번째 상황은, 자기에게 사백 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였습니다(32:6).

야곱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심히 두려고 답답"했습니다(7 절).

그는 형 에서가 와서 자기와 자기 처자들과 칠까 겁이 났습니다(11 절).

그래서 야곱은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11 절).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고난과 그의 손의 수고를 보시고(31:42)

야곱을 에서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 가"라 명하셨을 때  
그는 불순종했습니다(욘 1:2-3).  
그 이유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4:11).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하셨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호세아 1:2-3).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자  
그리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교회를 신부로 삼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빌 2:8)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서 '음란한 배우자, 음란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함을 깨달습니다.

## 숨을 좀 돌릴만 하면 ...

숨을 좀 돌릴만 하면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하니 원 ...

(참고: 출 8:15)

## 숭배자들 vs 예배자들

우상 숭배자들(idol worshipers)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호흡처럼 속이 없어지고 텅빈 것처럼

헛된 것을 섬기며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God worshipers)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언약적 사랑(히브리어: '헤세드') 가운데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므로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므로 예배를 드립니다(욘 2:8-9).

## 스스로 덮으려고 하기 보다 ...

내가 범한 죄를

스스로 덮으려고 하기 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으심을 의지하여

회개하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참고: 다윗).

##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아야 하는데 ...

스스로 주님 앞에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려 자백해야 하는데 ...  
(눅 8:47)

## 스스로 자신을 속인 것이다.

입술로는  
참으로 맞는 말은 하였는데  
행함으로는  
그 맞는 말대로 하지 않았으니  
결국 스스로 자신을 속인 것이다  
(렘 42:6, 20, 21).

## 스스로 자초한 결과?

물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빌 1:29)  
무의미한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면서까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  
우리 자신들의 어리석음 속에서  
자초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잠 22:3).



##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수 23:11).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6 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올무를 놓아서는 안됩니다(12-13 절).

오직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8 절).

##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과 짝지어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무와 덫과 옆구리에 채찍과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수 23:11-13).

##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수 23:11).

즉,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여(8 절)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6 절).

만일 우리가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것입니다.

##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미련한 자

미련한 자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있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그/녀의 어리석음입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잠 26:5, 12).

##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잠 3:7, 26:12)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는 좋아하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롬 2:21).  
이러한 자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잠 26:12).

## 스스로 천하게 보일 정도로 낮아져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은  
스스로 천하게 보일 정도로  
우리 자신을 더 낮아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힘을 다하여 춤을 추게 합니다  
(삼하 6:12-22).

## 스스로 해하지 말아야 할텐데 ... ㅠ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민 16:38).

## 시기와 미움

시기하면 다룹니다(창 26:14, 20).

미워하면 떠나게 만듭니다(27 절).

심지어 미워하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27:41).

## 시내산과 갈보리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고자

그들에게 성결을 명하셨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까봐

경계를 정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출 19:10, 12).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하시고자

자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경계벽을 무너트리셨습니다

(히 9:22; 엡 2:14).

## 시선을 끝만한 매력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시선을 끝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이  
전혀 없으신데(사 53:2, 현대인의 성경)

지금 주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자  
그들처럼 매력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으니  
교회 안에 세상적인 사람들로  
가득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 시작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미약했던 솔로몬 왕?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성경 구절 중 하나는  
바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욥기 8장 7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도 지혜로왔다는 솔로몬 왕을 생각하면 그의 시작은 심히 창대했지만  
그의 나중은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그의 시작에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여디디야"란 이름(뜻: 주님께  
사랑 받은 자)도 받고(삼하 12:25), 지혜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다 받았지만(왕상 3:12-13)

그의 나중에 나이가 많을 때에는 애굽 왕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 여인들이  
하여금 자기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왕상 11:1-4).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도를 지키지 않고(11절) 하나님을 떠나(9절) 우상을  
숭배하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5-6절).

어떻게 시작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따르던 자가  
나중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녀들의 우상들을 따를 수 있나요?

## 시험을 시련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나의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만 있다면 ...  
(약 1:1-4)

## 시험을 통해서라도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시험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순종의 삶을 살게하고 계십니다  
(창 22 장, 잠 3:5-6).

## 신뢰와 묵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 시편 1 편, 예레미야 17 장)

## 신뢰의 침묵으로 묵묵히 걸어가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있어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신뢰의 침묵으로  
영원한 약속의 하늘 나라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전진해 나아가리라.

[2019 가을 말씀 집회 첫째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여호수아 6 장 8-14 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 신뢰하는 가까운 친구도

내가 신뢰하여  
내 마음과 삶을 나눈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때 나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 41:9-12).

## 신뢰하라!

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면  
우리는 형통할 것입니다  
(대하 20:20).

##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과 권력에 굶주려 있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참고: 잠 28:20).

(George M. Schwab 의 "The Book of Proverbs"를 읽으면서)

## 신부된 교회는 정결한 처녀가 되어 합니다.

신부된 교회는  
"한 남편인" 신랑되신 그리스도께 드러져야 할  
"정결한 처녀"가 되어 합니다(고후 11:2).  
정결한 처녀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해야 합니다(3 절).  
그러나 사탄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들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3 절).  
사탄은 우리에게 "다른 예수"를 전파하며,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받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4 절).

##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내 행위를 뒤돌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향하여 내 발걸음을 돌이켜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시 119:59-60).

## 신앙생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인식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디모데전서 1 장 15 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 의식이 더 많아지고

공로의식이 없어지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고전 15:10; 록 17:10).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히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보십시오:

1.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 (고전 15:9)
2.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엡 3:8)
3. “… 죄인 중에 괴수니라” (딤후 1:15).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는 ...

1. 나는 점점 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있다(혹은 있는 것 같다)(엡 4:19).  
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 (롬 5:13).
2. 나는 점점 더 공로의식에 매여 있다(눅 18:11-12).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보다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마 25:44).
3. 나는 점점 더 교만해 지고 있다(잠 21:4; 겔 28:5). 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길 좋아한다(요 12:43).



##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일

신앙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일,

우리가 완전히 몰입해 있을 정도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급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 해야 합니다(시 1:3).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의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 신앙생활을 하면 할 수록 (1)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인식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딤후 1:15).

## 신앙생활을 하면 할 수록 (2)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 의식이 더 많아지고 공로 의식이 없어지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고전 15:10; 록 17:10).

## 신앙생활을 하면 할 수록 (3)

신앙생활을 하면 할 수록 겸손히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보십시오:

1.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 (고전 15:9)
2.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 (엡 3:8)
3. “… 죄인 중에 괴수니라” (딤후 1:15).

## 신앙의 게으름

신앙의 게으름은 마음에 문제이다.

그 마음의 문제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참고: 잠 24:30).

(George M. Schwab 의 "The Book of Proverbs"를 읽으면서)

## 신앙의 내리막길에서도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 94:18-19).

신앙의 미끌럼틀에서 올라기보다 내려가고 있을 때,  
마음에 근심이 많을 때,  
어느 누구의 위로도 내 영혼이 거절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케 하시니  
그저 하나님께 감사 감사할 수 밖에 ....

## 신앙이란?

신앙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므로  
견고함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사 26:3).

## 실제 삶은 ...

입술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길 원한다고 하지만(마 16:24)  
실제 삶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눅 22:54).

### 실족함이 없는 의인의 걸음

의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녀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 37:30-31).

###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지 않을 때

의로운 심령들이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으며 또한 마음이 찢기며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서는 교회를 책망하며 경고하시며

사랑으로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 징계를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책망과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 5:3).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

1.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압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아갑니다.
2. 자기 자신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선행을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3. 자기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녀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습니다.
4.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5. 겸손합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직 주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Iain M. Duguid, "Hero of Heroes"란 책을 읽으면서]

##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신뢰하되 영원히 신뢰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십니다  
(사 26:3-4).

##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의인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의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충분히 오만한 자를 질투할 수 있습니다  
(시 73:3, 14, 16).

## 심한 고통이 될 정도로 생각하는 것?

우리 각자에게  
심한 고통이 될 정도로  
생각하며 고민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기자 아삽은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데  
왜 악인은 형통한가 라는 질문이  
그에게는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시 73:16).  
그러한 질문의 해답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닫게 됩니다(17 절).

## "십자가의 걸림돌"

율법을 지켜 행하므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고

그리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걸림돌"입니다(갈 5:4, 11).

## “쓸 만한 그릇” ... “고난의 풀무 불”

주님은 우리를 "쓸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시려고(잠 25:4)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풀무 불"을 지나가게 하십니다(사 48:10).